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아버지 주일 메시지

##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질도 애정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정이 가정의 기초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기초이십니다. 사랑도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것이고 남편도 자녀도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영접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가르쳐야 합니다.

### 1.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중국의 속담에 ‘흩어진 새 둥지에는 온전한 새 알이 많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둥지가 비뚤어져 있으면 새알이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뚤어진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비뚤어진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훌륭한 일꾼이 됩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로부터,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 2.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공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무겁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요 그 부모님의 사랑과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해 주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림자 사랑입니다. 해가 반짝 나면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 같다가 해가 없어지면 그림자도 없어집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림자 같아서 자기에게 뭔가 반짝하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라지면 사랑도 시들어집니다.

나보다 지식이 모자라도, 나보다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는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키워주셨으며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저주를 당하고 치욕스러운 입장에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분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기쁘시게 해 드리되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윤리적인 복종, 다시 말해서 부모에 대한 복종이 종교적인 순종을 가져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잘 섬긴다는 말은 또한 부모님이 주신 유산을 소중히 가꾼다는 뜻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유산, 문화적인 유산, 물질적인 유산,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을 잘 가꾸어 나가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원로목사 이종윤

- 교회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 행보(行步) -

제3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제직회,  
제15대 안수집사와 제14대 권사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순차로 개최된다

5월 16일(주) :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특별제직회, 찬양예배 후  
5월 23일(주) : 향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찬양예배 후

당회는 지난 1월 정기당회에서 서울교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산하에 담임목사 청빙 준비 소위원회(위원장 안인호 장로, 간사 송인수 집사, 자문위원 노문환 장로)를 설치하고 후임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오랜 교회 분쟁과 담임목사 부재 과정을 거친 교회 상황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효과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담임목사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청빙하되 충분한 검증 기간을 가질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미 본 교단 소속 타 교회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사역을 거쳐 충분한 목회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될만한 분으로서 서울교회 규정에 따라 처음 안식년을 갖는 시점 이전에 은퇴하게 될 연령대의 목사를 청빙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3월 정기당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위원회(위원장 임상헌 장로, 서기 최형열 장로)를 정식으로 구성하고 성도들로부터 위 요건에 부합하는 담임목사 후보를 추천받았으며 추천된 목사들 중 최우선 순위로 선정된 손달이 목사(전 총회장, 서문교회 시무 중)에 대하여 지난 수요일

교육전도사 청빙 및 담당부서 이동

교회는 그동안 교회의 어려움으로 몇몇 교육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교회가 조속히 정상화 됨에 따라 천국시민 양성이라는 교회 설립이념을 더 활발히 실천하기 위해 각 부서별 담당 전담 교역자를 청빙하여 교육부서 운영을 힘 있게 재개하기로 하였다.

이에 강남희 전도사를 영·유아부 담당 준전임 전도사로, 허은 전도사를 유치부 담당으로, 이대원 전도사를 초등부 담당으로, 정기성 전도사를 중등부 담당으로, 김예지 전도사를 고등부 담당 교육전도사로 각각 청빙하고 기존 중·고

개최된 정기당회에서 청빙을 결의하고 헌법 정치 제28조 3항에 따라 오는 16일(주) 찬양예배 후 최종 결정을 위한 특별제직회를 소집하기로 한 것이다.

제직회에는 서울교회 정관 제7조 1항에 따라 부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물론 전도사, 협동장로, 협력장로, 협동집사, 협동권사, 서리집사 등이 회원으로 참석하게 되고, 전체 재직 숫자에 관계없이 출석한 수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소속 서울강남노회의 청빙 허락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 같은날 당회는 제15대 안수집사·제14대 권사 후보 추천명단도 확정하고 오는 16일(주) 공고를 거쳐 23일(주) 찬양예배 후 그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였다.

공동의회에는 서울교회 교인으로 등록된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담임목사 청빙과 연이어 이루어지는 안수집사와 권사 선출과정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특별한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등부를 담당하던 양하림 전도사를 청빙 당시 지원하였던 유년부 교육전도사로 이동하여 시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지난해 청년부 담당 안용곤 전도사 청빙이래 계속되어 온 교육부서 전담 교역자 청빙이 마무리되었고 이 분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동안 교회분쟁과 코로나19로 다소 침체되었던 교육부서 활동이 활발히 재개되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 특히 교육부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많은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 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 제목

1. 모든 송사 건이 속히 정리되게 하시고, 정결한 가운데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도록 성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 사랑하는 서울교회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념으로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목사를 하나님이 찾아 보내 주옵소서
3. 모든 청빙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나타나게 하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순적하게 진행되어 거룩하고 화평한 서울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4. 청빙위원들에게 성령충만과 분별력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5. 청빙 받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섬기던 사역지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기도와 격려로 후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신임교역자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디모데후서 1:11)



이대원 전도사  
초등부 담당

- 서울장신대학교 신학과
- 서울장신대학교 신대원 재학중
- 수원온누리비전교회 유·소년부 교육전도사



강남희 전도사  
영·유아부 담당

- 호남신학대학교 신학과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Th.M.)
- 안양동은교회 유치부 교육전도사
- 잠실제일교회 유년부 교육전도사
- 장석교회 유년부 교육전도사



정기성 전도사  
중등부 담당

- 백석대학교 기독교상담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과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 재학중
- 동부광성교회 중등부 기획 담당교사
- 동부광성교회 청년부 양육 담당 리더
- 을지군인교회 청년부 양육 담당 리더
- 을지군인교회 유·초등부 교육전도사



허은 전도사  
유치부 담당

- 서울장신대학교 신학과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기독교교육 전공 재학중
- 강남제일교회 아동부, 교육부 워킹팀 교사&교육부 간사
- 부활교회 유아·유치부·유년부 교육 전도사
- 연동교회 유아부 교육 전도사



김예지 전도사  
고등부 담당

-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 재학중
- 동부광성교회 교육전도사
- 주안장로교회 고등2부 교육전도사

# 분쟁 중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 서울교회! 수기 및 간증 공모

10월 31일(주)까지 수시 접수

아직 많은 소송과 재판이 남아있지만 제3대 목사 청빙 및 많은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교회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서울교회의 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에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시간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뜻하지 않았던 교회의 분쟁 중에 만난 하나님과 서울교회를 사랑하심을 체험한 성도

들의 체험 수기 및 간증, 시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서울교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락·기획·홍보 소위원회(위원장 : 송인권 장로, 간사 : 김시환 집사) 산하 분쟁백서 발간팀(팀장 : 장상국 집사)에서 모집한다.

지난 5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분쟁 중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많은 성도들의 참여 기다린다.

- 기간 : 10월 31일(주일)
- 담당 : 최종희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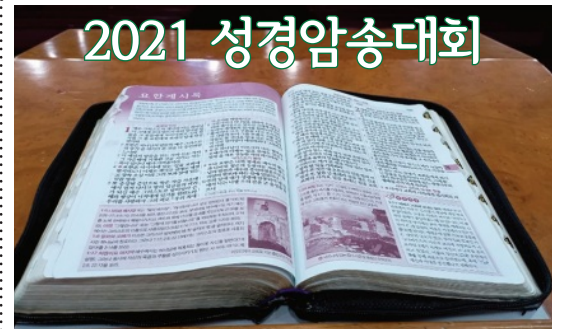
## 교적 사진 제출

5월 11일(화)까지 / 교적 담당 이준태 집사에게

교회는 5월 23일(주) 향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교인들의 교적 사진을 교체하려고 한다.

현재 교적에 있는 사진들 중에는 오래전에 찍은 사진들이 많아서 현재의 모습과 다른 사진들이 많이 있고 교적에 사진이 없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진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등록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최근에 찍은 사진 파일이나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교구와 본인의 이름과 함께 교적 담당 이준태 집사(010-8615-4299)에게 5월 11일(화)까지 보내주시기 바란다.



## 2021 성경암송대회

2021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암송범위 : 요한계시록 1-5장
- 일반부 본선 : 10월 30일(토) 오후 2:00
- 교회학교 본선 : 10월 31일(주)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31일 찬양예배 시에 암송할 예정이다.

##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지난 주 우리교회는

지난 주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오랜만에 유·초등부(유년부 부장 : 장윤기 집사, 초등부 부장 : 김혜연 집사)는 교회 현장예배를 진행하며 부서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 즐거운 교제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국시민 양성 - 신앙강좌반

# 우리말 성경의 역사 4

- 이수정의 마가복음 -  
두 번째 우리말 성경



이수정 (李樹廷 1842-1886)



1882년 수신사 박영효 일행으로 일본행



1883년 5월 동경에서 개최된 '제3회 일본 기독교 대회'에 참석한 이수정(흰 한복)과 그에게 한문성경을 주었던 쓰다센 목사(앞 줄 오른쪽 다섯 번째)



1884년에 출간된 '현토한한신약성서'

1882년 이수정은 제3차 수신사의 박영효 일행으로 일본으로 건너간다. 일본의 농업정책에 제일 큰 관심을 가진 이수정은 일전에 일본에 다녀온 선배 안중수의 주선으로 농학박사이자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인 쓰다센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 그는 광대한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본이 근대화되려면 속히 기독교를 수용해야 한다고 외쳤던 인물이었다. 이날 선물로 받은 한문성경을 탐독하면서 회심에 이르고 복음을 받아들여, 1883년 4월 29일 동경의 노월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수정의 가장 큰 소망은 조선 민족에게 철도와 전신, 기선보다 더 필요한 성경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한다면 한국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다. 그는 한문에 한글로 토를 다는 방식으로 <현토한한신약성서>를 제작하였다. 이것은 성경의 번역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당시 한학자들이 한서에 널리 쓰던 방식으로, 우리말 번역에 이르는 과정의 한 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1884년 미국성서공회 일본지부 총무인 루미스(H. Loomis)에 의해 인쇄 출간되었다. 여기에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포함된다.

1885년 이수정은 순수 우리말로 번역한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를 출간하였다. 당시 조선에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이수정은 놀라 기뻐하며 요코하마에 있던 언더우드를 찾아가 전달하여, 마침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에 상륙할 때 가지고



1885년에 출간된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 그해 4월 5일 언더우드가 갖고 들어온 성경

들어온다. 이때 언더우드는 이수정의 마가복음이 최초의 조선어 성경인 줄 알았으나 얼마 후 서상륜이 이미 로스역 성경을 들고 전도하러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다고 한다.

이수정 역은 만주에서 번역된 <예수성교전서>와는 달리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하였고, 고유명사 표기가 원어에 가깝다. 특히 이 성경번역은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말로 번역한 성경을 최초의 선교사가 가지고 입국했다는 것은 전 세계 선교역사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기에 선교학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한국 기독교는 신앙의 선조들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수고와 노력 가운데 뿌리내리게 되었다. 우리말 성경이 번역된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수정의 마가복음은 우리말 성경 번역의 역사에서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감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간 뒤, 조선 조정이 귀국할 것을 회유하여 이수정 선교사는 1886년 5월 입국하지만 곧바로 한양으로 압송되어 관헌에 의해 처형되었다.

요약정리 : 김애리 집사(편집부)

### 동정

- 개업 : 8교구 이재준 성도 (이시환 집사 송미라 권사 장남) '李家돈가스' 성북구 아리랑로 5길 20

##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5월10일	월	대하 6-7		율 1-3, 암 1-9	
5월11일	화	대하 8-11		욘, 은 1-4, 미 1-7	
5월12일	수	대하 12-16		나 1-3, 합 1-3, 습 1-3	
5월13일	목	대하 17-20		학 1-2, 속 1-14	
5월14일	금	대하 21-24		말 1-4, 마 1-4	
5월15일	토	대하 25-28		마 5-9	
5월16일	주일	대하 29-30		마 10-13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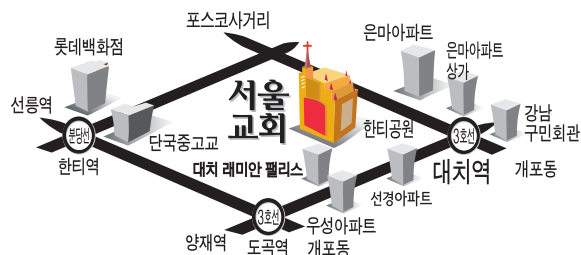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1.5월 16일(주) 실시되는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특별제직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회를 신실하게 감당할 담임목사가 청빙되게 하옵소서.
- 2.5월 23일(주) 실시되는 항중직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 3.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온 세계가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